

첨단산업 ‘스마트 안전·편의 인프라 확대’

산단공·광주시·(주)케이티,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2차 연도 협약체결

인공지능·ICT기술 접목한 ‘안전·편의 스마트 인프라 확충’ 바차

광주첨단산업단지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 안전·편의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첨단스마트그린사업단은 최근 광주시·(주)케이티와 ‘광주첨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2차 연도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은 오는 2023년까지 총 3년의 사업 기간 중 지난해 1차 연도 사업에 이어 2차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인프라를 인공지능(AI)과 IC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인프라로 개선해 산단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출·퇴근 생활 편의성 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주관기관인 광주시는 지방비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한다. 참여기관인 케이티는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국비 85억원, 지방비 45억원 등 총 1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가운데 2차 연도인 올해는 약 53억원이 사업에 투입된다. 앞서 1차 연도 사업기간에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청사에 통합관제실을 설치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수해방지 시스템과 방범·교통·화재감시를 위한 지능형 CCTV, 근로자 편의

를 위한 무료 와이파이 인프라 등을 구축했다. 올해 2차 연도에도 1차 연도에 이어 통합관제센터 전산 인프라와 IoT 수해방지 시스템, 지능형 CCTV,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 고도화와 확충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근로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정류장 쉼터’, 스마트보안 등, ‘스마트주차장’ 설치사업 등이 신규로 진행된다. 황상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첨단스마트그린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첨단산단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산단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전남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 확대

전남도는 5월부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5%이하 가구에서 120%이하 가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폭력 행위자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대상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가정법원 보호 7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알콜중독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는 진찰료 등 본인 부담금을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용섭 시장, 대구시와 상호 명예시민증 전달. 이용섭 시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1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양 도시간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시민증을 상호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달빛동맹’ 권영진·이용섭 시장, 상대 도시 명예시민 됐다

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식... 시민증 서로 전달

동서 화합의 달빛(달구별·빛고을) 동맹을 이끌어온 권영진 대구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이 상대 도시 명예시민이 됐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권 시장에게 116번째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 권 시장은 재임 기간 두 도시 상생 발전을 위해 달빛 고속철도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힘썼다고 광주시는 평가했다. 달빛동맹 2기 출범을 통해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 추진위원회 구성, 2038 대구·광주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지위원회 발족 등도 광주시와 함께 추진했다. 2020년 2월 대구시로부터 마스

1만장을 지원받은 광주 장애인 시설을 대표해 노미향 광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협회장이 권 시장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했다. 지난달 대구 71번째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이 시장도 이날 권 시장으로부터 시민증과 패를 받았다. 이용섭시장은 “광주·대구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명예시민이 되신 권영진 시장께 광주 시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2022-드52121 상속한정승인
사망자:김동현(1938년06월16일생)
최후주소:서울 관악구 문성로38길 38-8, 103호 (신림동)
위 망 김동현의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 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년 5월 19일
공고인: 김도우, 박혜영
주소: 전남 완도군 완도를 개포로 154-13
한정승인수리일: 2022. 5. 18.
공고기간: 2022. 5. 19~2022. 7. 18.

‘전남 방문의 해’ 중동 관광시장 개척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관광 로드쇼’ 한국 대표로 참석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중동 관광시장 개척에 나섰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두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두바이 지사가 지난 15~16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젤다에서 주최한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기념 한국 관광 로드쇼’에 대한민국 지자체 대표로 참석해 사우디 여행사, 미디어를 대상으로 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우디의 한국 관광 로드쇼는 15일 수도인 리야드의 하얏트 호텔, 16일 젤다 크라운 호텔에서 진행했다. 한국과 한류에 대한 호감도를 가진 영향력 있는 대표 여행사와 미디어, 주 사우디 대사, 사우디아 항공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관광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고 파리 패션위크 패션쇼가 열렸던 신안 퍼플섬과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주로 소개했다. 무슬림 친화음식을 포함한 전남 관광 파워포인트(PPT) 발표 및 영상 홍보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다. 특히 전남도는 15일 사우디 송출 여행사 플라이어카드(FlyAkeed), 사우디 온라인 여행 전문 플랫폼 운영사 실키시스템즈(Silky systems), 중동 관광객 유치 여행사 크리레판과 업무협약을 하고, 전남 관광 홍보 및 중동 관광객 유체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 관광시장이 빠르게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주력 관광객인 중국과 일본 관광 시장이 폐쇄된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 세계 인구의 25%인 19억 무슬림 관광객에 대한 관광 홍보에 집중해 소득을 올린 셈이다. /박종배 기자

광주시 중소기업 온라인 기획전 운영

65개 지역 기업 참여...연말까지 5개 온라인몰서 진행

광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몰 입점을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온라인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번 기획전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기획전에는 65개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해 옥션, 지마켓, 위메프, 쿠팡, 우체국쇼핑 등 5개 온라인몰에

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옥션, 지마켓, 위메프는 지난 16일부터 기획전을 시작했으며, 쿠팡, 우체국쇼핑 등은 18일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김치, 한우, 김부각 등 식품을 비롯해 공기청정기, 화장품, 마스크 등 다양한 생활제품을 판매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10% 쿠폰 발행 등 할인 프로모션도 실시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구매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형안 기자

광주·전남 확진자 2110명...유행 진정세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진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1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남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901명·전남 1209명으로 합쳐 2110명이다. 광주지역 위중증 환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22개 모두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 확진자 1명이 추가로 숨져 누적 사망자는 433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규모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증감을 반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 광주·전남에서는 일상 접촉과 고위험 시설(병원·교육기관) 집단 감염이 이어졌다. 광주지역 위중증 환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22개 모두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 확진자 1명이 추가로 숨져 누적 사망자는 433명으로 늘었다.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월 130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지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84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